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자포럼 회장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관계없이 지속해야

지금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나는 통일문제, 남북문제를 전광하고 초창기에 금강산빛길 문화체험 '을 서울신문과 함께 주최하고 개성나무심기도 주최하고 백두산역사문화체험도 17차례 주최하고, 2004년에는 인도적 지원 문자 인도를 위하여 남포항과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그래서 평소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학술회의나 토론회, 세미나, 칼럼 등에서 적극 주장했다. 2016년 6월 16일 나는 국회출입자포럼 회장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 위원에게 '금기시(禁視)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취임사에서 치고 나왔듯이, 통일문제도 적극 의결할 수 있겠다'고 하시니 고집이었다. '통일문제는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정 위장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동년 9월 22일 국회의장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지금 함경북도 쪽에서 해방 후 최대의 흉수 피해가 있다. 정부에서는 제재 국면이라고 했고 국회에서도 당마다 입장이 다른데,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수혜 지원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라고 내가 질의했다.

정 의장은 '북한 수혜가 심각하다. 정부는 제재 중심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마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적

지원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거기에 공감한다. 정부에게 부답되지 않는 선에서 의회가 남북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 길을 찾아 가는 길을 펼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2016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하고 남북 경제와 평화의 산소 마스크인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오직 적대와 대결만 펼치던 시절이었다. 미국, 유엔과 함께 북한을 제재(制裁)와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북한 간에 모든 연락과 교류, 소통이 단절된 반공과 벌공의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처럼 보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통일을 말하거나 주장하면, 용공과 좌파 빨갱이가 되어 반정부 위험인물이 되었던 유신독재 같은 시절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알른 나서지 못하는 남북문제, 민족의 비원(悲願)인 통일 문제를 민의의 집단입법부 주장인 국회의장으로서 통일문제를 앞장서서 치고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나의 집의에 대한 정 의장의 답변은 모범 답변이었으나, 그 실천은 보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북한은 자력갱생의 가치를 들고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하여 계속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핵시설도 일부 폐쇄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몇 차례 했지만, 완화되지 않고 계속되는 제재와 압박에 반발하여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했다.

서독이 통일되기까지 20년 동안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인 동방정책을 지속했다.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했다. 통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다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통일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逆進行)을 해버린다. 남북이 교류 협력하면 남북이 상생하고,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는데도 모든 것을 폐기하라는 낡은 잣대를 들이댄다.

북한은 어려운 식량 사정을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국제기구에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응답을 안하고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제일 먼저 기꺼이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거절하고 못무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에게, 형제에게 받는 것도 자존심도 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수 세력의 반대와 폄훼가 심하다.

또 촛불민심을 계승한다는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과 짜짜공짜어서 북한을 제재로 계속 묶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반감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를 대체로 잘 풀어나가고 있으나,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자기편이 아니라고 공격당하고 있다. 중재자, 조정자라는 것은 참으로 처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칫 양쪽에서 욕을 먹고 양쪽에서 불신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할 기회를 갖겠지만, 나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비정상 국가라고 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1990년 한·러 수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은 북·미수교와 북·일 수교를 간절히 애원했으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미국과 한국은 거부하고 제재만 계속하고 있다. 6·25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적성 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할 때, 엄청난 핵보유 강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를 문제 삼았는지 묻고 싶다.

국교 정상화를 해서 정상국가를 만들어 주었더라면, 체제 유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사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우리나라와 평화로운 우호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이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어린이 돌지는 모금운동이 많은데, 어린이한테 안 가고 집권 지도층에게 기부하면 안되는 인도적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인도적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안 가고 집권층이나 군대에 가서 가면 안되는 인도적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보수정권에서 떠들었다.

독일 통일과 우리의 과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의 통일 정책을 이유 붙이지 말고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社說

봄철 건강 세심한 관심 필요

지난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국민들이 몸살을 앓았다. 이제 봄이 되어 미세먼지가 주춤하자 이번에는 꽃가루 공습이 시작됐다. 봄철의 불청객이라 할 수 있는 꽃가루는 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5월 극성을 부리는 꽃가루는 노란색 분진 형태의 소나무 송홧가루와 암버즘나무의 종자솜털, 참나무 꽃가루 등이 대표적이다.

알레르기 환자의 몸에 이런 꽃가루가 유입되면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하는 비염과 결막염, 천식 등 염증성 질환이 유발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병원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4~5월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환자가 평소보다 20%가량 늘면서 소아는 물론 노인까지 환자의 연령대는 다양해진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

다. 일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고 감기에 걸렸다고 착각해 병을 키울 수 있으니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고통을 덜 수 있고 신속한 치료도 가능하다니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는 매우 높음부터 '낮음'까지 4단계로 나뉘는데 '높음' 이상이면 야외 활동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때는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봄철 건강관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자칫 소홀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상청 등도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등을 보다 많이 홍보하고 알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宮	집	궁	宮殿盤鬱
殿	전각	전	
盤	소반	반	
鬱	답답할	울	

▷ 뜻: 궁전(宮殿)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 서린 듯 위치(位置)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좌우측만 정확히 살펴도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다

우회전시 좌·우측의 안전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파생된 사고로 작년 한 해 약 3천7백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회전 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렇듯 우회전 시에는 좌우를 살펴 보행자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시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신경 쓰면서 우측에는 장애물이 없겠지 하는 안이한 판단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 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일의 잘못을 미리 대비 하라는 뜻의 교훈적 속담이기도 하다.

조금만 더 살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말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고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특히, 봄 영농철 도로를 주행하



는 농기계 등이 많아 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차량운전자는 회전시 반드시 좌우측을 확인해야한다.

차량 또는 농기계 사용시 음주 운전(작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륜차 안전도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우리 모두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문화를 정착에 나가기 바란다.

문두석 /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설실창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